

한 국 어 판

True Peace

Vol. 40

TRUE PARENTS' MESSAGE AND NEWS

天一國 11年

天曆 10월

2023년 양력 11월



권두언

참부모님 말씀

참부모님 동정

특집

HJ NEWS

현장소식

참어머님 포용의 시대

미국성직자협의회(ACLIC) 특별집회 하늘 섭리로 본 인류역사 6천년 현재는

HJ천원단지 '가평베고니아새정원'과 '아쿠아가든카페' 방문

미국성직자협의회(ACLIC) 특별집회 "깃발을 들어라"

천일국 11년 천지해원 추석절 파주원 봉헌식 및 파주원전 참배식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국제지도자회의(ILC)



참어머님 포용의 시대

데미안 던클리 미국 총회장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식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참어머님 신미국 순회일정에 앞서, 참어머님을 미국에 모시기 위해 미국 전역을 돌며 준비했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전하고자 합니다.

순회에 앞서 저는 무엇보다 “참어머님 포용의 시대(재부흥 운동)”를 개최하기 위한 잠정적 시기와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버스터미널에서 수많은 버스를 출발시키기 위해 일찍부터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에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목적은 출발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정확한 시간, 안전성, 편의성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버스터미널에서 승객도 모르는 사이에 버스 노선이 변경되었다면 어떨까요? 100% 승객들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순회를 준비하는 제게는 식구들과 2세권 청년들을 안전하게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곳까지 정확한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태우고 운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늘섭리의 완성, 창조주 하늘부모님의 뜻을 향한 참어머님의 섭리에 있어 신미국 전체가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제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 개기가 단연 참어머님과 모두를 하나 될 수 있게끔, 부모와 자녀의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두가 진정 재탄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정연합 식구여러분. 지금은 하늘부모님께서 창조이상세계의 완성을 위해 보내주신 독생녀 참어머님을 중심한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부모님의 인침을 받아 탄생하신 독생녀 참어머님을 중심한 문화입니다. 새로운 시기 새로운 역군으로 우리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늘부모님께서 이상하셨던 태초의 창조이상세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과정 중 하나가 참어머님께서 저를 미국에 보내신 이유라 생각합니다.

순회 기간 저는 소규모 지도자와 구성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신미국 순회를 통해 천심원 정성과 참어머님 섭리노정 강의, 2세권 집회를 개최한 결과 저는 신미국 가정연합 식구들과 2세권 청년들이 참어머님을 맞을 수 있는 기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신미국에 하늘부모님과 참어머님을 직접 모실 수 있는 큰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신미국 120일간 특별정성 속에 전국 순회, 참어머님 주관 2세권 특별집회에 참석한 참석자 대다수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었고, 특별히 참어머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 즉 재탄생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렵고 바쁜 시기 신미국을 재탄생시키시기 위해 김진춘 천심원장과 신동모 총재비서실 1실 부실장과 함께 전국순회를 명 해주시 참어머님의 사랑이 뉴욕 벨버디어를 시작으로 뉴저지, 워싱턴 D.C., 달라스,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라스베이거스까지 구석구석 전달 된 결과입니다.

저는 순회 기간 내내 참어머님께서 미국 전역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참어머님께서서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에 맞서 하늘의 역사가 열릴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가정연합 섭리역사의 또 다른 장이 아닙니다. 더 깊은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가정연합 식구여러분. 분명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스를 타고 과거 노선이 아닌 새로운 노선으로 목적지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섭리의 진실을 이해해야 하며, 사랑하는 참어머님의 말씀을 잘 받아 실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권두언

- 02 참여머님 포용의 시대
데미안 던클리 미국 총회장

특집

- 10 미국성직자협의회(ACLC) 특별집회
“깃발을 들어라”
- 16 한·일·미 지도자 친심원 특별철야 정성
- 18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신미국 2세권 특별집회
- 21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천주사관생도
(UPA) 및 천일국 특사 특별조찬
- 22 천원궁시대와 참부모님을 중심한
신앙 미국 순회강연
- 24 천지인참부모님 승리귀국
특별연합 예배

HJ NEWS

- 28 천일국 11년 천지해원 추석절
파주원 봉헌식 및 파주원전 참배식
- 30 푸아드 솜비 만다이즘 세계회장 부부
천정궁 방문

현장소식

- 32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국제지도자회의(ILC)



참부모님 말씀

- 04 세계평화를 위한 구상
천성경 제10편 제4장 1절
- 06 하늘 섭리로 본
인류역사 6천년 현재는
미국성직자협의회(ACLC) 특별집회

참부모님 동정

- 08 HJ천원단지 ‘가평베고니아새정원’과
‘아쿠아가든카페’ 방문

- 34 멕시코,
‘틀락스코 매직타운 8주년 기념식’
- 36 아르헨티나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초종교 기도회
- 38 중학교 인성교육 캠페인과
양해각서(MOU) 체결
- 39 건강한 성 문화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효정증거

- 41 나는 가야한다
프리드리크 불수크





세계평화를 위한 구상

천성경 제10편 평화사상 제4장 1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흑백의 인종문제가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악의 투쟁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국경이 없습니까? 각 국가마다 국경이 있습니다. 흑백의 인종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분열이 벌어져 있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정세에 오시는 주님은 국경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인종을 초월해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

다. 분열된 가정을 통일해야 되고, 선악이 싸우는 이 세계에 평화의 왕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가정 앞에 희생해야 됩니다. 나라는 하나의 세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굴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길을 모색하지 않고는 앞으로 올 하나의 세계까지 나아갈 길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입니다.(053-071, 1972 02 09)

종교는 국가 체제를 넘고 세계 체제를 넘어야 됩니다.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

진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진리를 가진 종교는 타락권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제도나 모든 풍습이나 모든 국가나 모든 종족 혈족까지도 변질시킬 수 있는 주체적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아시아가 따로 없고, 서구가 따로 없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적으로 분립되고 민족적으로 분립되고 종족적으로 분립되는 현상이나 편파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은 사탄의 기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바라는 표준은 하나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의 백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의 국토를 가질 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중심삼은 영원 불멸의 하나의 주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직계의 자녀들이 천명을 받들어, 하나님을 대신한 명령을 가지고 그 왕권으로 치리하는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072-291, 1974 09 01)

지금까지 세계의 수많은 민족, 혹은 오색인종이 만든 문화권의 세계를 전부 타파해 버리고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주의적인 가정제도, 하나님주의적인 사회제도, 하나님주의적인 국가제도, 하나님주의적인 내용을 갖춘 이상세계가 벌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주의가 타락하지 않은 완전한 아담주의입니다.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닌 아담주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주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021-157, 1968 11 17)

선생님은 이제 유엔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유엔을 묶어서 뭘 할 것이냐?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델이 평화의 국가가 될 수 있고 통일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초민족·초종교·초인종·초문화권을 중심삼고 형제지애로 아담 한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신 것이 천하의 대왕마마가 됩니다. 아담 가정이 가정의 왕으로서 종족왕·민족왕·국가왕·세계왕으로 발전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전수되어 계속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267-090, 1995 01 02)

종교의 중심은 뭐냐?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물론 신에 대한 이름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신은 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입니다. 하나의 신을 두고 말할 때 각 나라의 언

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신을 표시하는 명사는 달리 나타나지만 그 본체는 하나입니다. 신이 지향하는 목적은 종교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수많은 종단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단이 가는 길의 목적은 하나의 귀결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 귀결점은 평화와 연결될 수 있는, 천국과 연결될 수 있는 이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210-199, 1990 12 23)

인간이 아무리 평화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만 인간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는 세계적인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보다도 옛날의 많은 도인들이 정성 들인 것으로 이미 그 세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발달된 과학문명 속에서 실존주의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그 이상을 탐구하겠다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간이 소망하는 본향의 나라,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하나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몸과 내적인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마음과 몸이 통일되어 있느냐 할 때 이 몸이 원수입니다. 마음은 곧바로 가기를 바라는데 몸은 반대로 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

니다.(019-282, 1968 03 10)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을 중심삼고 개인과 가정·국가·세계·천주를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랑을 중심삼은 평화의 세계를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을 전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참다운 개인과 참다운 가정·국가·세계·천주가 되지 못하고 슬픔을 동반한 개인과 가정·국가·세계·천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것을 복귀하기 위하여 수고해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도 복귀의 뜻을 따라 나왔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개인이 복귀되고, 가정이 복귀되며, 국가·세계·천주가 복귀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은 참다운 개인으로부터 가정·국가·세계·천주까지 어떻게 복귀할 것이며, 이 천주가 하나님의 심정에 어떻게 일치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를 걸어 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고생해 왔습니다. 선생님은 원리를 찾고 난 후에 이것이 과연 인류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았고, 또 이 원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이념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013-242, 1964 03 29). 





하늘 섭리로 본 인류역사 6천년 현재는

미국성직자협의회(ACLIC) 특별집회
천일국 11년 천력 8월 23일(양10.7) | 라스베이거스

나는 오늘 ‘하늘 섭리로 본 인류역사 6천년 현재는’이라는 제목 하에 말씀하고자 합니다.

창조주는 인류의 부모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광물세계, 식물세계, 동물세계까지 쌓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시조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 즉,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성장기간을 주시

어 그들 스스로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 시조가 되어야 할 그들은 책임을 못하고 타락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인류 역사입니다.

하늘은 전지전능하시며 시작과 끝이 같으십니다.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결과를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책임분담으로 말미

암아 하늘은 탕감복귀, 구원섭리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택하시어 중심 인물을 세우시어 탕감복귀 구원섭리역사를 하시는 그 섭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4천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탄생시켰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를 탄생시

킨 마리아도 사가랴 가정,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반드시 책임을 하셔야 하는 자리였기에 십자가로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마' 했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다시 오마' 한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부활로 사도들에 의해서 출발됩니다. '다시 오마' 한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기독교 섭리의 2천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더더구나 창조주에 대한 본질도 몰랐습니다.

미국은 하늘이 섭리의 완성을 위한 재림 메시아의 환경권을 만들 수 있는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의 현재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종교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창조주께서 바라시는 지상천국, 창조주가 바라고 인류가 소원하는 자유로운 평등, 평화, 통일의 하늘을 모시는 인류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섭리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타락한 인류로서는 창조주 하늘부모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독생자, 독생녀가 있어야 섭리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야말로 타락한 인류 앞에 구세주입니다. 참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거듭나게 될 때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로 말미암은 새로운 시대, 새 역사,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섭리가 천일국이라는 새 역사시대를 만나, 인류를 선도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기독교 성직자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오

늘 나서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회 성직자 여러분들은 성직자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늘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환경권을 넓히며 지상에 참부모와 함께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넓혀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하늘의 진실, 창조주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을 밝히고, 나 또한 성직자 여러분의 본질은 참부모의 아들, 딸임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영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숨 쉬고 있는 이때는 여러분과 나의 입장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교회와 그 환경에서 여러분과 같이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참부모를 모시고 지상천국 생활을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HJ천원단지 ‘가평베고니아새정원’과 ‘아쿠아가든카페’ 방문

천일국 가을절기를 맞아 천일국 11년 천력 9월 6일(양 10.20) 천지인참부모님께서
HJ천원단지 <베고니아새정원>과 <아쿠아가든 인 매그놀리아>를 방문하셨다.





본 장에서는 미국성직자협의회 특별집회를 비롯한 주요행사(천심원 기도회, 2세권 집회, UPA 특별조찬, 순회강연, 승리귀국 연합예배)를 분야별로 나누어 특집으로 꾸몄다.

미국성직자협의회(ACLCL) 특별집회 “깃발을 들어라”



미국성직자협의회(American Clergy Leadership Conference 이하 ACLCL) 특별집회가 천일국 11년 천력 8월 22일부터 23일까지(양 10.6~10.7) 참여머님을 모시고 참가정을 비롯하여, ACLCL 기독교 성직자, ACLCL 코디네이터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스베이거스 IPEC에서 은혜롭게 거행됐다.

ACLCL는 2000년 5월 22일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120명의 미국 성직자가 뜻을 모아 창설한 초종교·초교파 성직자 협의회다.

ACLCL는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 3대 종파를 중심으로 화합 의식과 이스라엘 평화대행진을 전개했다. 또한 ACLCL는 수십 년 동안 참가정 운동을 이끌어 온 가정연합과 함께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존 잭슨 ACLC 공동의장, 루온 에이브럼 라우스 ACLC 공동의장, 데미안 던클리 미국 총회장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ACLC는 데미안 던클리 총회장의 사회로 기도, 찬양과 예배, 환영사(김기훈 신미국 천심원장), 경배, 꽃다발 봉정, 문화공연(티 엘 바렛 목사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참부모님 말씀, 증언(마크&에드나 애버나시 박사, 찰스 더들리 주교&마리온 더들리 목사), 깃발 전수식 및 결의식, 기념사진, 역만세 삼창,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참어머님께서는 세계평화무도협회 문권진 이사장과 함께 기념식장으로 입장하시어 기독교 성직자들이 준비한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바구니를 받으신 후 환한 미소로 성직자들을 맞아주셨다.

참어머님께서는 <하늘 섭리로 본 인류역사 6천년 현재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며, "이제는 기독교 성직자가 책임을 할 때"라고 말씀하신 후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과 인간시조의 타락, 구원섭리 역사로 탄생된 독생자 예수님의 현현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기독교 역사와 재림메시아의 환경권으로 준비된 미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더불어 섭리의 진실과 독생녀의 출현 및 참부모님의 노정에 관해 설명하셨다.

참어머님께서는 ACLC 목사들에게 "여러분은 성직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상에 참부모님과 함께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넓혀야 한다."시며, "여러분들은 어머님의 영적인 자녀다. 각자의 교회와 환경에서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지상천국 생활을 확장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이어 ACLC 대표 가정이 나와 참여머님께 결의를 표한 뒤 ACLC 서명식 및 결의식이 진행됐다. 성직자들은 참여머님과 하나되어 가정연합 깃발을 자신들의 교회에 달고 참여머님의 뜻에 동참하여 활동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서약문

- 1) 우리 교회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기를 게양할 것을 결의한다.
- 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위한 재정적 임무에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
- 3) 우리는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참여머님과 하나되어 변치 않는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
- 4) 독생녀 참여머님과 하나되어 가정연합 영역을 확대하며 진리를 밝히고 교육할 것을 결의한다.
- 5) 우리 교회에 천심원 기도실을 설치할 것을 결의한다.

이후 성직자들은 이러한 결의의 마음을 담아 가정연합 깃발에 사인하여 참여머님께 봉정했다. 특별히 이날 마지막 순서로 ACLC 성직자 소감발표(자서전·특별강의·특별행사) 시간이 마련되어 특별집회가 더욱 빛났다. 



성직자 소감문

루온 에이브럼 라우스 목사(ACLC 공동의장)

“깃발을 들어라” 특별집회는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머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성직자가 가정연합 깃발을 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행사에 임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성직자 전체는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 시대에 참부모님로 인침을 받은 인류의 독생녀 참여머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성직자로서 저희는 하늘 부모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구현하고 참사랑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어머니의 위대한 비전을 세상 앞에 알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삶 속에서 하늘 부모님이 함께하신다는 것과 각 개인 안에 신성한 하늘부모님의 사랑과 참부모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리 라우스 목사

사랑하옵는 참여머님, 오늘 참여머님을 모신 저의 마음은 큰 감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참여머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스러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어머니를 향한 저희의 사랑을 어머니 또한 강력히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성직자들은 단합과 연대를 통해 저희들의 정성의 상징으로 저희는 어머니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요청에 행동으로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성직자들은 단합과 연대를 통해 저희의 흔들림 없는 정성의 상징으로 ‘가정연합 깃발’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참부모님의 사명과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 참된 심정과 참된 사랑과 참된 말씀을 중시하고, 인류구원의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국의 성직자로서 자랑스럽게 우뚝 서겠습니다.



찰스 두들리 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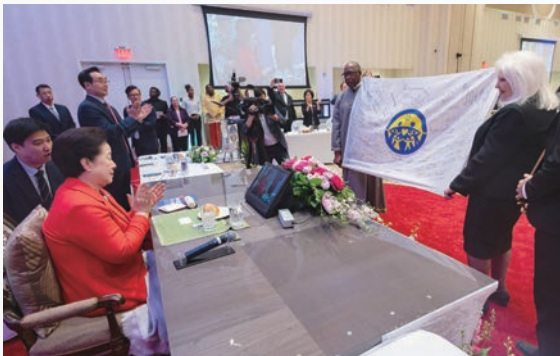
참어머님께서 말씀을 듣는 동안 저는 17살 때 해병대에 입대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 저를 준비시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해병대 당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와 국적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17세부터 60세가 되는 이 날 이 순간, 제가 참된 여성인 참어머님 앞에 서서 어머님께 소감을 말씀드릴 것이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만을 위해서 저를 50여년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군대와 목회 및 결혼생활과 같은 삶의 경험을 통해 그동안 저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인류의 독생녀, 참어머님을 만날 것이라 확신하셨습니다. 저는 참어머님의 삶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섭리에 동참하게 된 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리온 두들리 목사

이번 행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참어머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참어머님을 뵈었을 때, 제 심정은 참어머님과 일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참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어머님 진심으로 참어머님의 용안을 직접 뵈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어머님의 용안이 각인되었기에, 제가 눈을 감으면 오직 어머님의 용안만이 보이게 됩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술란치 그랜트 루이스 대주교

참어머님,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정말 멋진 날입니다. 우리 모든 종교 지도자는 오늘 참어머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전국에 가정연합 깃발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독생녀 참어머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케네쓰 & 마델리안 알렉산더 목사

저희 부부가 참여머님께 꽃다발 봉정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사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와 인연이 된 모든 사람에게 참여머님을 소개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성직자들이 독생녀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실체요 참여머님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갖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듯이 같은 관점에서 참여머님을 이 시대의 독생녀로 소중히 여겨야 함을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릴린 코틀렉 목사

참여머님께 깃발을 올려드렸을 때, 저는 참여머님 용안이 눈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여머님께서는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참여머님 사랑합니다.

마크 애버나시 목사 부부

참여머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참여머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1986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참여머님을 보았습니다. 이후 저희는 참부모님에 관해 공부했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돌아가 신도들을 위해 축복식을 주관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머님을 모시고 미국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 가족의 삶을 전적으로 참여머님을 위해 바칠 것을 맹세하며,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한·일·미 지도자 천심원 특별철야 정성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하신 참어머님께서는 ACLC 특별집회에 앞서 한·일·미 지도자들에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때이니 천심원에서 하나되어 기도 정성을 올려라.”는 말씀을 주셨다. 참어머님 지침에 따라 한·일·미 지도자들은 신미국 천심원에 함께 모여 천일국 11년 천력 8월 21일부터 23일까지(양 10.5~7) 2박 3일간의 은혜롭고 간절한 기도회를 진행했다.

데미안 던클리 신미국 총회장은 <두 마리 생쥐>를 예로 들며, 생쥐 두 마리가 크림 통에 빠졌지만 한 마리는 삶을 포기하고 익사했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치자 크림은 단단한 버터로 바뀌어 그 덕에 살아나올 수 있었다며, “천심원 철야를 통해 한·일·미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질적인 변화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신일본에 닥친 위기를 놓고 기도회가 진행된 만큼 참석한 지도자들은 위기를 극복할 힘이 생겼다고 참여머님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ACLC 성직자들 역시 천심원 기도실 역사에 대한 소개를 안내받으며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모든 보고를 들으신 참여머님께서는 천심원을 둘러보시며 “신미국이 앞으로 천심원을 중심삼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며, 신미국 전역을 포함한 ACLC 지도자들 교회에도 천심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은사를 베풀어주셨다. 7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신미국 2세권 특별집회

“참어머님 품 안에서 효정: 떠오르는 미래세대”



신미국 2세권 특별집회가 “참어머님 품 안에서 효정: 떠오르는 미래세대”를 주제로 천일국 11년 천력 8월 23일부터 24일까지(양 10.7~8) 양일에 걸쳐 라스베이거스 IPEC에서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미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2세권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는 참부모님 주관 2세권 특별집회에 앞서 참어머님께서 특별히 김진춘 천심원장과, 신동모 총재비서실 1실 부실장에게 미국 8대 도시를 순회 교육을 당부하신 덕분이었다. 더불어 신미국 전 식구들은 하나되어 천심원을 중심으로 정성을 모은 덕분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데미안 턴클리 신미국 총회장이 참어머님을 모시기 위해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재부흥 운동>을 펼친 결과였다.

첫날 행사는 문연아 총재비서실 1실 총재비서실장, 송용천 세계회장, 신동모 부실장, 김진춘 원장, 김기훈 신미국 천심원장, 데미안 턴클리 총회장의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주제로 특별강의 시간이 마련됐다.

집회에 참석한 1,200명의 2세들은 오랜 시간 참어머님의 사랑을 기다린 만큼 강의장을 꽉 채웠으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준비된 강의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튿날에는 참어머님을 모시고 특별집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특별집회는 데미안 던클리 총회장의 사회로 찬양, 경배, 케이크 커팅, 꽃다발 봉정, 환영사, 참부모님 말씀, 문화공연, 간증, 억만세 삼창,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참어머님께서는 특별히 2세권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하늘 섭리 역사, 인류를 위한 구원섭리 탕감 역사 6천년 만에 참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퓨어 워터다. 너희들이 퓨어 워터로서, 미래의 하늘부모님의 꿈을 지상에 넓혀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 모든 면에서 실력을 갖추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독생녀, 참어머니, 왕엄마의 소원이다.”고 당부하셨다.

이어 참어머님께서는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왕엄마와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왕엄마는 천일국시대의 환경권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다 세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천원궁을 건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하늘부모님께서 참부모와 함께 너희 사랑하는 2세 3세권을 품고 그렇게도 꿈에 그리고 고대하던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지상천국의 세계를 넓혀 나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 모두가 승리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소감문

조세프 (21세, 2세 남자)

눈앞에 나타나신 참어머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차분하신 모습이었습니다. 1,200여 명의 청년들을 사랑으로 맞아 주시며, 따뜻하고 온화한 말씀으로 한 순간에 전체를 압도하시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어머님의 귀한 말씀과 그 순간 분위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모두가 참어머님의 자녀이고 형제이자 자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젤린 (25세, 2세 여자)

그저 참어머님을 뵈 수 있음에, 미소 지으시는 모습을 뵈 수 있음에, 참어머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음에, 제 마음의 영혼이 부활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에드워드 (33세, 1세 남자)

특별집회를 통해 참어머님을 뵈고 말씀을 들으며, 참어머님께서 정말 저희 2세의 마음을 많이 신경 써주고 계시는 구나라고 생각 할 수 있었습니다. 참어머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성장하여 이 엄청난 때에 참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전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타니슬라브 (16세, 2세 남자)

가정연합의 청년들, 미래세대를 위한 참어머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함께 미국을 하늘부모님 앞으로 돌려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참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천주사관생도(UPA) 및 천일국 특사 특별조찬



참어머님께서는 미국의 2세권 총회를 마치신 다음 날 아침(양 10.9), 특별히 북미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UPA 및 천일국 청년특사를 초청하여 조찬을 베풀어 주셨다.

이날 조찬에는 시니어 UPA 3기 앤텔라 GPA 훈육관 및 행정관, 아델리나 GPA 코디네이터 및 훈육관을 비롯하여, 후쿠다 토모미 제2지구 사무국장(워싱턴DC CRP 센터장), 시니어 UPA 2기 제이크 라비나(뉴저지 카프 회장), 시니어 UPA 7기 우에다 요시유키(캐나다 밴쿠버 회장) 등 5명의 특사와 뉴저지,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선교 실습 중인 천일국 청년특사 10명이 참석했다.

참어머님께서는 UPA 및 청년특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소개받으시며, 미션 국에 대한 선교 활동 보고를 들으신 후,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현장에서 잘 활동하고 승리하여 북미 3억 인구를 책임질 수 있는 젊은 지도자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셨다.

이어 참석자들은 그간 틈틈이 준비한 노래를 참어머님께 봉헌해 올리며 강한 다짐과 결의를 다졌다.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기원절을 선포하시며 2027을 향한 7년 노정 가운데 미래인재 양성에 가장 중점을 두시며 선행 ‘천주평화사관생도(UPA)’를 창설해 주셨다.

참어머님께서는 직접 UPA 생도들의 임관식과 발령식을 직접 주관하시며 “여러분들은 진리와 말씀으로 거듭나서 세상 앞에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실감하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빛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어두운 세상이 밝혀질 것입니다(양 2013. 3. 4).”고 축복하셨다. 



천원공시대와 참부모님을 중심한 신앙 미국 순회강연

‘이 시대의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와 섭리완성’의 주제로
신미국 순회 강연 성황리에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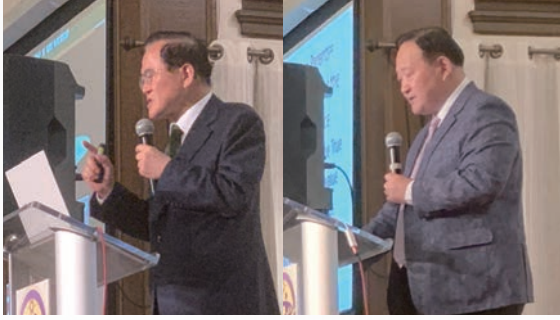


이번 순회강연은 뉴욕주 테리타운 수련원(양 9.22/ 180명)을 시작으로 뉴저지주 클리프턴 교회(양 9.23/ 300명), 워싱턴 타임즈 빌딩(양 9.24/ 300명),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교회(양 9.26/ 120명), 시카고(양 9.29/ 140명), 로스앤젤레스(양 9.30/ 176명),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양 10.1/ 150명), 라스베이거스 국제평화 교육센터(양 10.3/ 120명)에서 진행됐다.

김진춘 천법원 원장과 신동모 제1 총재비서실 부실장은 ‘이 시대의 참부모님의 위상 가치와 섭리완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참아버님 천주성화와 팬데믹 이후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이 가정연합을 중심으로 온전히 전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순회강연을 시작했다.

김진춘 원장은 참부모님의 본질, 위상과 가치, 참부모님의 섭리 완성, 참어머님과 일체를 중심으로 강의를 열정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신동모 부실장은 UCI(통일교회 세계재단) 법정 소송 사건의 전말을 보다 정확하게 밝히며, 식구들이 참어머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 위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신미국 전역에서 참석한 식구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 쉽지 않은 일정 가운데서도 미국을 방문하여 말씀을 전해 준 김진춘 원장과 신동모 부실장, 데미안 던클리 총회장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앞으로 세계본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공동체 속에서 서로서로 하나 되어 참어머님을 모시고 전진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현장 관계자는 “신미국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메시지였다. 이런 시간이 진심으로 자주 필요하다.”며, “교육을 위해 신미국 전국 순회의 은사를 베풀어 주신 참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또한 강연 참석자는 “2세들에게 참부모님에 가치와 위상에 대해 교육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특별히 세계본부에서 직접 명 강사를 보내 강의를 진행해 주셔서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며, “다행히 모두가 같은심으로 금번 순회강연을 위해 정성 들이고 참석한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도 미국 내에서도 이런 시간을 자주 마련하여 교육해 나가야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미국에서는 ‘천원궁 시대와 참부모님을 중심한 미국 8개 도시 투어’(양 9.22)를 위해 120일간 총 21회의 연합워크숍을 개최하며 정성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천지인참부모님 승리귀국 특별연합예배



천지인참부모님 승리귀국 특별연합예배가 천일국 11년 천력 9월 1일(양 10.15) HJ천주천보수련원 대성전에서 참가정을 비롯하여 천일국지도자, 신한국 목회자 부부, 섭리기관 및 기업체 임원, 평화대사, 중심식구 등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됐다.

이날 예배는 송광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 협회장을 사회로, 개회선언, 천일국가 제창, 가정맹세, 보고기도(양창식 UPF 세계의장), 기념영상, 특별보고(송용천 세계회장·김진춘 천법원장·신동모 비서1실 부실장·이기성 천심원장), 꽃다발 봉정(이현영 한국종교협의회 회장·양종은 KCLC 국제위원장), 케이크 커팅, 참부모님 말씀, 효정문화공연, 억만세 삼창(김동연 신한국 YSP 회장),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참어머님께서는 이날 말씀을 통해 “지금에 이 시대가 오늘이 바로 알곡을 수확하는 때 인 것입니다. 알곡이라 함은 천일국의 축복가정입니다. 지상에 참부모와 함께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 생활의 환경을 넓혀가는 축복가정 여러분들이야 말로 참다운 건강한 알곡입니다.”라고 축복하신 후, “이제는 천일국 시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 출발이 시작된 천일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축복가정들의 책임이 하늘이 거두어야 할 건강한 알곡들을 많이 수확하는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시며,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하늘부모님과 함께 참부모가 축복 자녀들과 함께 하는 지상천국 생활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동안 하늘이 모든 면에서 한때를 위해서 준비해온 의로운 사람, 전문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밝은 미래, 행복한 미래, 그동안 불효했던 창조주 하늘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송광석 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참어머님께서는 팔십 성상의 몸을 이끄시고 섭리의 장자 나라 신미국으로 출국하시어, 미국 ACLC 목사님들과 2세권 미래 지도자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시며, 신미국 순회를 승리적으로 하늘 앞에 봉헌하시고, 지난 10월 11일 새벽에 환국하셨습니다. 순회 기간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평화와 희망을 말씀을 전하시며,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지 않고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고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참어머님의 위대한 참사랑을 전한 뒤 “여러분 모두 참어머님의 미국 순회의 승리적 결실을 상속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창식 세계의장은 “우리 앞에 도전해 오는 온갖 불의와 부당한 도전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통일이 식구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부지불식간에 하늘 섭리를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늘의 능권과 철장이 정의와 진실을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라며 “오늘 천상과 천하에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시고 시작하는 이 모임에 하늘 부모님 친히 좌정하시어 저의의 눈과 귀를 뜨이게 하시고 가슴을 열고 부모님의 심정 속에 파고들어 우리가 가야할 저 정상을 향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일본·미국·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오세아이나·유럽·러시아·중동지역의 모든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당신의 축복과 권위와 사랑이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했다.

이어진 특별보고 시간에는 가장 먼저 송용천 세계회장이 참여머님 신미국 순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보고를 진행했다. 송용천 세계회장은 ACLC 기독교 목사 특별집회와 신미국 2세권 특별집회를 중점으로 보고하면서, 특별히 이번 순회의 가장 큰 결실은 “독생녀 실체성령 참여머님과 ACLC 성직자가 완전히 하나” 되었고, “천심원을 중심하고 한·일·미 영계가 하나” 되었으며, 참여머님을 중심하고 신미국 2세 청년들이 완전히 하나 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두 번째 김진춘 원장은 ‘참부모님의 위상가치와 섭리완성’이라는 주제로, 참부모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을 증거한 결과를 공유했다. 김진춘 원장은 “이 시대는 참여머님을 중심한 최종 섭리완성의 시대이기에 가정연합 식구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판단을 통해 섭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신동모 부실장은 참부모님을 중심한 신앙의 중요성을 UCI의 불복종 사례를 중심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강연한 결과를 보고하며, “참어머님을 모시고 하늘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천일국 안착시대를 맞은 우리들은 참어머님께서는 참아버님과 하늘부모님과 함께 하나로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섭리의 주인이신 참어머님과 하나되어, 참어머님의 고통받는 심정을 해방해 드리는 효정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기성 천심원장은 ‘천심원 섭리의 은혜’라는 주제로 보고했다. 이기성 원장은 참어머님의 말씀에 따라 미국에서 한·일·미 지도자가 하나되어 3일 동안 천심원 특별정성을 드린 결과를 전하며, 이번 천심원 특별정성은 참어머님의 은혜 속에 놀라운 은혜가 공명 되어 신미국 2세권이, ACLC 목사들이 독생녀 참어머님을 실체성령으로 모시고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고 말했다.

은혜로운 네 명의 특별보고 이후, 참어머님의 승리 귀국을 경하 드리는 ‘천심원 찬양단과 크리에이트 어젤리아 그리고 UPA의 효정문화공연이 펼쳐져 신명을 더했다. 전체 행사는 김동연 신한국 YSP 회장의 선창의 역만세 삼창을 끝으로 성료됐다. 



천일국 11년 천지해원 추석절 파주원 봉헌식 및 파주원전 참배식

‘천일국 11년 천지해원 추석절 파주원 봉헌식 및 파주원전 참배식’이 천일국 11년 천력 8월 15일(양 9.29) 파주원전 파주원에서 참가정을 비롯하여 섭리기관장, 기관기업체장, 원로 및 종친, 대교회장 및 중심식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눠 거행됐다.

1부에는 참여머님께서 윤희해 주시고 명명해 주신 ‘파주원 봉헌식’이 이기식 부협회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경배, 축도, 경과보고, 봉헌말씀, 테이프 커팅, 현판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석진 서울북부 대교회장은 대표보고를 통해 “파주원전에 영면해 계시는 심천개방원 충효개문주 효진님의 효의 심정과 천총관 흥진님의 충의 정신을 물려받고, 충심봉신 대모님의 지극 정성의 심정과 통일가 선배님들의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정신을 온전히 상속하여 통일가의 전체 무리가 전력투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라고 간구했다.



송광석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한국 협회장은 봉헌 말씀을 통해 “참여머님께서는 원전에 안치된 분들의 뜻을 기려 제실 건축을 허락(2020.8.31)하시며, 이 제실 이름을 ‘파주원’으로 축복(2023.9.15)해 주셨다. 여기에는 우리 공동체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더욱 잘 모시라는 뜻이 있으며, 우리는 이곳을 통해 희생의 길을 가신 참가정의 숭고한 삶을 기억하고, 원로선배들의 충효의 전통을 이어가라는 하늘의 바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은 봉헌축도에서 “파주원전은 하늘부모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나라의 의를 안착시키고자 사생결단하셨던 참가정과 통일가의 참된 영웅들을 기리는 곳이기에 모든 축복가정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이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 결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2부에는 ‘천일국 11년 천지해원 추석절 파주원전 참배식’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성초 점화(문효진·문흥진 가정), 개회선언, 천일국 제창, 가정맹세, 보고기도, 헌화 및 경배(참가정, 원로존친, 각계 대표, 영육계 전체를 대표한 축복가정), 흠향, 기념사, 축도, 억만세 삼창,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송용천 세계회장은 참부모님의 총해원 추석절 말씀을 소개하며, 파주원전은 가정연합 섭리사의 산실이다. 가정연합의 큰 명절인 추석절의 깊은 의미가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용천 세계회장은 뜻 길을 위해 큰 책임을 갖고 성화하신 참가정과 선배 가정,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화하신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성령의 은사로 새로운 시대를 만드시 열겠다는 각오와 결의의 축도를 올렸다.

이후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을 중심으로 참가정 문신출군과 문신흥군에게 베를린 장벽의 기념 돌을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이는 과거 문효진님께서 독일의 베를린 장벽을 붙들고 기도 하셨을 때의 기념 돌이기에 신통일한국을 만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전체의 결의의 마음을 모아 전달됐다.

마지막으로 조만웅 원로목회자회 회장의 억만세 삼창에 이어, 대표자 중심으로 제1원전에서 제4원전까지 원전 참배식을 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푸아드 숭비 만다이즘 세계회장 부부 천정궁 방문

푸아드 소비 만다이즘 세계회장 부부가 천일국 11년 천력 7월 30일부터 8월 14일(양 9.14~28)까지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천정궁을 비롯하여 한남동 평화대사관, 남양주 가정교회 등을 방문했다.

만다이즘은 이라크 남부에 현존하는 그노시스파의 그리스도교도이다. 본래 만다이즘은 수백만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박해와 학살에 직면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만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푸아드 소비 회장은 현재 만다이즘 세계회장을 맡고 있다.

푸아드 소비 회장은 정확히 40년 전인 1983년, 중동전의 어려움 속에서 홀로 호주로 건너와 호주 정부와 협상하여 만다이즘교도들을 이주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에도 2만 명에 가까운 만다이즘을 이주시킨 이력이 있다.

푸아드 소비 회장은 사실상 만다이즘에서 ‘아버지’로 칭송 받는 존재이며,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늘부모님의 뜻과 만다이즘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푸아드 소비 회장은 2019년 국제지도자총회(ICL)에서 처음 참부모님의 인류평화활동을 접한 뒤, 자신이 경험한 진한 감동과 강한 결의의 보고를 참부모님께 올린 바 있다. 당시 푸아드 소비 회장은 “참어머님은 진정한 인류의 어머니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2019 아시아태평양 서밋, 2020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2020 월드서밋,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 2023 피스서밋 등에 참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참어머님의 섭리를 위해 430가정 신종족메시아 사명완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만다이즘 교인이 참부모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고 있다.

푸아드 소비 회장은 지난 5월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 때도 2022 피스서밋에 참석하여 봉헌을 위한 정성을 드리며, 전 세계 19개 만다이즘 성지와 더불어 천원궁을 20번째 성지로 자리 매길 할 것이라는 말을 전한 바 있다.

이번 방문 기간 푸아드 소비 회장은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을 만나, 본향원(本鄕院)에서 ‘참아버지’에 경의를 표했으며, 참어머님을 중심한 효정 천원의 섭리를 보다 확실히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푸아드 소비 회장은 2025년 천원궁 입궁식을 기해 다시금 한국 방문을 기약하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효정천원성지 순회 및 한국 탐방의 시간을 마련해주신 참어머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 국제지도자회의(ILC)

파라과이 UPF(구스타보 줄리아노 교육국장) 주관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행사인 <국제지도자회의(ILC)>가 천일국 11년 천력 8월 6일(양 9.20) “문선명 목사 천주성화 기념 신임 평화대사 임명식 및 역사공감: 국방과 국경 보안”이라는 주제아래 파라과이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ILC는 파라과이 애국가 제창(국립 경찰청 실내악단)을 시작으로 추모곡, 경배, 개회기도(하비에르 오브레곤 목사), 환영사(에바리스토 페르난데스 파라과이 UPF 회장), 영상상영(천주평화 11주년), 환영사(프레디 프랑코 국회의원이자 평화대사) 참여머님 리더십 소개, 천주성화 11주년 기념 영상 상영, 기조연설<파라과이, 평화의 땅>, 역사 공감(페데리코 프랑코 전 파라과이 대통령), 기조연설, UPF 소개: 표창장 수여식 및 신임 평화대사 임명식(시몬 페라볼리 남미 UPF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프레디 프랑코 국회의원이자 평화대사는 환영사를 전한 후, 자신이 국회에 있는 한 UPF의 모든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에두아르도 히로히토 나카야마 로하스는 ‘파라과이, 평화의 땅’이라는 주제로 “평화는 인류가 열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남아메리카는 모든 인류를 위한 평화의 내외적 센터가 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페데리코 프랑코 전 파라과이 대통령은 ILC 개최 환영의 인사말을 전한 후,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행동과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취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파라과이 역사와 그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베르나르디노 안토니오 곤살레스 미란다 국방부 차관은 “국토방위와 국경보안법”에 대한 언급을 통해 “안보의 목적은 국가의 통일성과 문화를 보존하는 데 있으며 이는 인류 전체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고 전했다.

시몬 페라볼리 남미 UPF 회장은 “UPF의 세계 평화 업적”에 대해 발표 한 후, 도냐 에밀리아 알파로 데 프랑코 전 영부인이자 상원의원에게 표창과 더불어 신임 평화대사 10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시몬 노이디르 페라볼리 UPF 회장은 새로 임명된 평화대사 10명을 비롯하여 참석한 전체에게 “세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멕시코, '틀락스코 매직타운 8주년 기념식'

틀락스코에서 “매직타운” 8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천일국 11년 천력 8월 17일(양 10.1) 열렸다.

“매직타운”이란 멕시코 관광청에서 지정한 멕시코의 문화, 역사, 예술, 안전 등을 담고 있는 관광도시를 말한다.

멕시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FFWP)과 천주평화연합(UFP)에서는 8주년 기념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가족 관계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전체 일정은 마리아 파야레스 키타나 루 UFP 회장의 사회로 UFP 주요활동 소개(빅토르 카스티요·마츠오 사유키 UFP 사무총장 부부), 환영사(호르헤 리베라 시장), 특별 소감발표(빅토르 파레데스·아비가일 바르가스 부부), 케이크 커팅(에스테르 리베라 누에보 레온 여성 연구소의 코디네이터), 폐회사(라우라 로페스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회장), 기성 축복식(2가정), 평화의 비둘기 제막식(아르만도 플로레스 시장)으로 진행됐다.





빅토르 파레데스·아비가일 바르가스 부부는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며 “유년기 보호 대상 아동들이 가족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적응하고 이해하는 일, 아동은 아동의 권리와 육과 부모는 현명한 부모 교육이 전해주는 효과는 향후 더 큰 결실로 다가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아르만도 플로레스 시장과 카롤로스 고메스 박사는 “가족 강화 프로그램은 향후 평화 세계 확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현명한 방법이다.”며, “이러한 내용들이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고 추억된다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FFWP와 UPF의 활동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 개최를 위해 멕시코 행정부는 물론 국립여성연구소, 세계지속가능재단, 만국평화연맹이 후원에 참여했다. 

아르헨티나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초종교 기도회

2023년 9월 21일(양)은 UN이 정한 세계 평화의 날이다. 종교간 협회(IAPD)와 아르헨티나 UPF는 세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초종교 기도회”를 세계 평화의 날 행사 일부로 개최했다.

바실리오 학교 평화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시마오 페라볼리 남미 UPF 신임 회장과 시우다델라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을 비롯하여 80여 명의 종교지도자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심 기도(시우다델라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 에두아르도 카스트로와 노르마 리미아 카톨릭 공동체의 에큐메니즘과 종교간 대화 위원장, 라비 마르셀로 압텍만 유대인 공동체의 창립 멤버, 알테킨 알바 문화간 대화 센터 이사, 노에미 파레데스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 목사, 라마크리시나 아쉬라마 아르헨티나 영성교회 부회장, 스와미 푸르나보다난다 힌두교 공동체 부회장, 마우리시오 세프 카규 테크첸 추링 이사장), 종교간의 대화(앙그라즈 싱 그란티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구르드와라 구루 람 다스 데브지 시크 공동체 의장; 이 야 아데알레 에우제니아 칼비 요루바 전통 사제, 일레티 오야오군 아프리카주의 종교 협회장, 카를로스 바르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협회장, 구스타보 리바르디 아르헨티나 과학교회 회장, 안드레아 페르난데스 베반스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물문교 디렉터, 브라더 호라시오 피사노 바실리오 과학교회 부총재), 합심예배, 소감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시마오 페라볼리 박사는 “인간은 항상 수많은 장벽에 막혀 고통을 받아왔다. 세계 평화의 출발점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일차적인 장벽을 깰 방법을 찾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 따르면 참사랑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곳에 남아 그의 뜻을 주장하고 인류가 따라야 할 길을 가리키도록 부름 받았다,”고 전했다.

초종교 기도회 말미에 미굴라 워너 아르헨티나 UPF회장은 갈등과 전쟁의 위급한 시기에 믿음, 영성, 단결, 사랑과 봉사의 힘으로 한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중학교 인성교육 캠페인과 양해각서(MOU) 체결

콩고민주공화국 청년학생연합(IAYSP)은 <교육의 핵심은 마음 교육>이라는 주제로 천일국 11년 천력 8월 2일(양 9.16) 세인트 몽포르 중학교(가톨릭 재단)에서 학생들을 위한 1일 인성 교육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이날 콩고민주공화국 메르베이 사시 IAYSP 회장과 윌리 망갈라 생 몽포르 중학교 교장은 지속 가능한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평화를 위한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기 위한 양해각서(MOU)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활동을 위해 콩고민주공화국 IAYSP는 빅토르 냥기 기업가이자 청년 고용단체장으로부터 미화 1,110 달러의 장학금을 지원을 받아, 세인트 몽포르 중학교 학생들에게 학비 및 생활비 일부분을 지급했다.

특별히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IAYSP가 학생들을 위해 제공한 인성교육과 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건강한 성 문화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건강한 성 문화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토고 세계평화여성연합(WFWP)과 청년학생연합(YSP) 공동주관으로 천일국 11년 천력 8월 20일(양 10.4) ‘엠마뉴엘 왕자’ 학교에서 개최됐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학교 설립자 겸 교장을 비롯하여 교사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건강한 성 문화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1부에서는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춰 성교육이 진행됐다. 잘못된 성, 조혼, 조기 임신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소녀들과 동성애, 마약, 술·담배, 가정폭력 등으로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사고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2부에서는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교내 생활을 위한 비법 전수와 그에 따른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가정 내 화목, 활발한 교우관계, 미래를 위한 진로 결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토고 WFWP와 YSP는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먼저 각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초·중·고) 청소년들을 지도했다.

교육 이후 ‘엠마뉴엘 왕자’ 학교 설립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 형성을 돕기 위해 교육해 준 WFWP와 YSP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학교 역시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학생은 자기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안전한 삶을 실질적으로 교육해 준 강의 내용에 진심으로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토고 WFWP와 YSP는 앞으로도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와 기관이 합심하여 사각지대에 놓은 청소년에게 보다 올바른 성 인식 문화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인성교육, 원리교육, 축복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는 가야한다

프리드리크 볼수크
독일선교사

하나님의 음성

1975년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일본, 미국, 독일 3개국 선교사가 한 팀이 되어 예수님 시대 120 문도와 같은 입장에서 그 수에 해당하는 선교부를 전 세계에 마련해야 했습니다. 3개국 선교사들은 아담, 해와, 천사장을 대표한 입장이었으며, 예수님의 세 제자를 대표한 입장에서 세계적 판도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참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해외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 나왔습니다. 참부모

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적 대전환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원리 공부에 집중해 왔으며, 고등교육을 마치기도 전에 캄베르크 수련소에서 개최된 해외선교사 파송 수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너는 반드시 선교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별생각 없이 잠이 들었고, 다음날에도 여느 날과 같이 수련 일정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폴 베르너 목사(당시 관리자)는 한 통의 전화 받더니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음과 동시에 “스리랑카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니 지원자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어려서 해당사항 조차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 하늘이 제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스리랑카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저를 선교지로 보내시기 위해 마련한 장소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975년 4월 27일, 제 21년간의 해외 선교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국경 너머

스리랑카에 가기 위해 인도를 방문한 저는 무거운 짐 가방을 멘 채 인도 공식 검문소로 이끌려 갔습니다. 인도 국경 경비대는 몇 번이고 저의 여권을 살펴보더니 ‘당신은 입국이 불가합니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뜻을 전하려고 가는 제 앞길이 저지당한 것입니다. 순간 저는 “내가 설마 이 두 나라 사이에 버려지는 것은 아니겠지? 누가 내 말을 알아듣고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는 중에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를 동원하여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었지만,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를 비롯하여 불교, 자이나교, 조로아스터교 등,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가 그 당시 총동원되었습니다.

첫 인상

우여곡절 끝에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스리랑카의 열대 기온과 코를 찌르는 땀 냄새를 비롯하여 매우 차별화된 문화와 언어,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주는 첫인상은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그 어느 것에도 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없이 쿵쾅거리는 제 심장이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스리랑카는 인도 남쪽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3분의 2정도 크기의 섬으로 인구는 2천 만명이 조금 넘는 곳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선사시대부터 내려오는 나뭇의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매력적인 나라로 주변 국가들에게 아름다운 땅이라는 의미의 '랑카'로 또는 '세렌딕'으로 불려 왔습니다. 그러나 500여 년간의 긴 식민지 시대 속에 우여곡절을 거치며, 마침내 1972년 '스리랑카'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전체 인구의 75%가량을 차지하는 싱할라족(불교), 15%가량의 타밀족(가톨릭) 외에도 9.2%가 무어족(이슬람교)으로 구성된 다민족·종교 국가입니다. 평화롭게 살던 이들은 식민 통치를 겪으며 결국은 불교도인 싱할라족이 주도권을 잡고 민족과 종교적 갈등과 소수 종교에 대한 박해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항에 도착하여 눈앞에 펼쳐진 광경만으로도 스리랑카의 심각한 경제난, 종교난은 물론 사회적, 정치적 어려움까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소중한 인연

저는 스리랑카 콜롬보에 도착한 첫날 오후부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중심가의 상점과 길거리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한 통일원리전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독일 대사관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곳에서 스리랑카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 젊은 독일 여성과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 또한 저와 같은 이유에서 독일대사관을 방문했고, 우리는 이런저런 사소한 대화를 시작으로 낯선 땅에서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녀에게 참부모님의 사명과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렇게 그녀는 스리랑카에서 저의 첫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이어 나가던 사이 미국인 선교사인 아만다와 일본인 선교사인 미시노리가 스리랑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청년 전도를 위해 콜롬보 대학을 방문하여 참부모님의 평화 사상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가 다른 그들은 뜻밖에도 ‘태초의 하늘부모님의 이상, 창조이상세계는 평화세계’라는 내용에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많은 내용을 들으려는 열정도 보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종교 간의 차이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세계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추방과 분쟁

스리랑카에 입국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시점에 놓였습니다. 사업 비자를 갖고 있는 미시노리(일본 선교사)와 달리 저와 아만다(미국 선교사)는 더 이상 스리랑카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 그동안 우리와 연결되었던 많은 사람을 통해 어떻게든 비자가 연장될 수 있도록 알아보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만다는 스리랑카를 떠나야 했습니다. 출국 이후에도 몇차례나 저와 아만다는 스리랑카로 입국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지만 돌아오는 답은 강한 감시와 제한 뿐이었습니다. 이후 아만다와 저는 다시 스리랑카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미션을 받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선교국, 피지(1975~1983)

남태평양 서부 남동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피지에 도착한 저는 미시노리(일본인 선교사)를 통해 피지 선교 역시 스리랑카와 유사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국 6개월 이후부터는 피지 정부 당국 역시 모든 선교사를 추방 또는 일자리 갖는 것을 어떻게든 방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지에서 지속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비자 발급이 불가피했습니다.

저는 잔혹한 현실 속에서 40일 특별 정성을 들이는 것 외에 그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피지에서 인연 된 독일인 젊은 커플이 피지 수도 수바에 위치한 남태평양 대학에 저를 소개해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갑작스러운 독일어 교수 사망으로 급히 독일어를 가르쳐 줄 강사가 필요했고, 저는 저의 유일한 강점인 독일어를 통해 직업과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독일어 교육을 받는 제자로부터 저는 피지 농업 개발사업의 독일 부서에서 부팀장으로 고용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실제로 아무 능력도 없었던 저를 어떻게든 피지에 남겨 두고자 하신 하늘의 역사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피지에서 장기비자를 취득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고, 나아가 가정교회 활동에 필요한 도요타 미니버스를 구입한 덕에, 지역 활동 및 교회학교 프로그램까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기독교(64%), 힌두교(28%), 이슬람교(6%)의 피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통일원리 교육까지 받게 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기간, 시간, 교육을 통해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며 신뢰 관계를 꾸준히 형성하여 끈끈한 인연을 맺은 덕에 오늘날까지도 쉽사리 연락하며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참부모님의 말씀이 우리 인연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미션으로 가게 된 필리핀(1984~1993)과 러시아 하바롭스크(1993~1995)

저는 축복을 받고 1984년 봄, 남편과 함께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임무는 하루빨리 선교 센터를 확장하고, 성장시켜 지역사회 전체를 전도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도착한 날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다바오시 까다야완 축제로 곳곳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총성이 들려왔고, 센터 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 두 명의 경찰관이 공산당원들에게 죽임을 당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때보다도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하늘부모님께 “제가 정령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너는 이곳에 있는 너의 형제자매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한 음성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다바오시에서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바오시는 일본인 선교사에 의해 개척 기반이 성공적으로 닦여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활동은 전폭적인 센터 회원들의 열정으로 2개 도시에서 5개의 도시로 금세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평화와 민주주의,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모든 종교의 최종 정착지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이상세계 건립에 있다는 참부모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그들에게 먹혔고, 그 덕분에 다바오시 활동은 날개를 달고 훨훨 날기 시작했습니다.

‘통일은 사랑의 터 위에서 이뤄지고, 평화는 통일의 기대 위에서만 달성된다’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설파하기 위해 우리는 관할지역을 비롯하여 타 시도 소재의 학교는 물론 군, 관, 언론사까지 방문했습니다. 그때 연결된 종교 관련 교수와 수많은 학자는 이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카우사 세미나에 참여하여 필리핀이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센터 식구들은 원리, 통일사상, 승공이론, 카우사 활동, 원화도 수련, 지역 봉사활동을 생활화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경제적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다나오섬의 선교는 젊은 학생들과 교수들의 노력으로 나날이 성장해 갔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와 남편은 다양한 활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마닐라로 이주하라는 미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3년 초, 저는 극동 러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행정 중심지인 하바롭스크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로 이주한 6개월간은 블라디보스토크 고등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한 통일원리 세미나를 주재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구시대적이었고, 우리의 교육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제격이었습니다. 러시아 문학과 세계 종교를 기반으로 한 인성 교육을 중점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며 저와 남편은 어느새 일상생활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러시아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보다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진정한 참부모

저의 지난 선교 시기를 돌아보면, 모든 시간 속에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오직 참부모님의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언어, 관습, 문화와 환경의 장벽을 넘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며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초창기의 개척기와 성장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현지인들이 주역이 되어 전도하고 자립하고 성장하는 시기임을 절감합니다. 저는 오늘날 제게 주어진 또 다른 미션을 향해 항상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과 부자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ㄸ

